

금융

산업이슈 브리프 |

Check Point

- 중국 금융권 리스크 확산 가능성 제한적
- 은행 건전성지표 안정적. 부동산 관련대출 억제기조 지속
- 국내 금융권 영향 미미

중국 금융권 리스크 점검

Analyst 전배승 _ 02 3779 8978 _ bsjun@ebestsec.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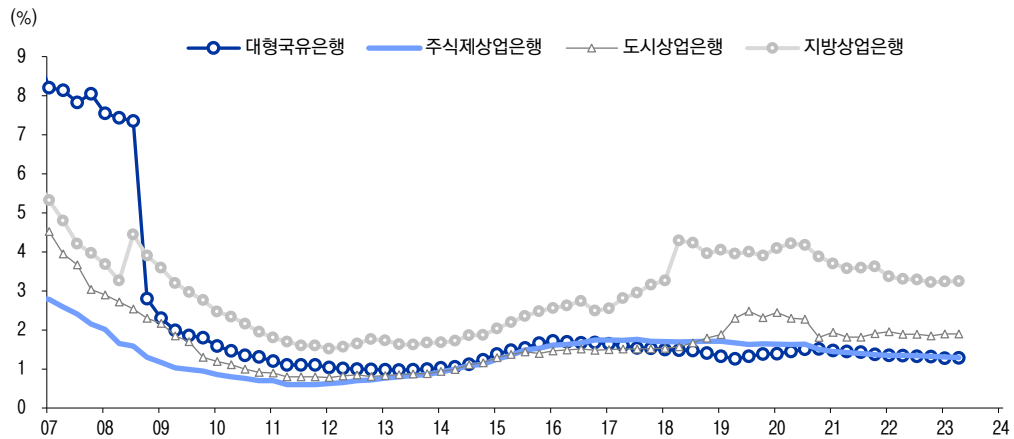
중국 금융권 리스크 확산 가능성 제한적

- ▶ 중국 대형 부동산개발업체 비구이위안(컨트리가든)의 이자미지급으로 인한 디폴트 우려로 중국 금융권 위기감 고조. 피치는 부동산관리 자회사인 비구이위안서비스홀딩스의 신용등급을 투기등급(BB+)으로 강등했으며 항생지수에서도 제외됨
- ▶ 21년말 부도위기에 직면했던 헝다그룹 사태와 본질적으로 유사. 2020년 이후 중국 정부와 금융당국의 부동산 규제강화 조치로 인해 부동산대출의 디레버리징이 이어지고 있음. 중국 은행권 부동산대출 증가율은 2020년초 1.0%(yoy)를 상회했으나 현재 0.5% 수준까지 하락. 부동산대출 가운데 개발관련(부동산디벨로퍼) 대출의 경우 21년 중 0%수준까지 낮아진 이후 최근에는 5% 수준으로 반등
- ▶ 비구이위안의 경우 지방 중소도시(3~4선도시) 중심으로 부동산 개발사업을 확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중국 부동산가격 가운데 1~2선 도시의 경우 소폭이나마 플러스(전년동월비)를 기록 중인데 반해 중소도시의 경우 지난해 이후 지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음. 이로 인해 비구이위안의 개발사업에 차질을 빚고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것으로 파악됨
- ▶ 중국 경제 내 부동산 관련비중이 GDP 대비 25%에 달하고 엔데믹 이후에도 경기회복세가 더디게 진행되면서 금융당국은 금리(LPR)인하 조치를 통해 대응하고 있음. 다만 금리인하 폭이 크지 않고 모기지 대출 억제조치 등이 병행되고 있어(23년 중 마이너스 기록) 단기 내 해결을 기대하긴 쉽지 않은 상황
- ▶ 그럼에도 중국 금융권내 위기 확산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 일부 신탁사 등의 동반부실 우려가 제기될 수 있으나 중국 은행권의 건전성 지표는 특이사항이 없음. 대형 국유은행 뿐 아니라 규모가 작은 지방상업은행들도 고정이자여신비율이 안정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며, 대형은행의 경우 NPL비율이 지속 하락하고 총당금적립비율이 높게 유지되는 가운데 자본비율은 꾸준히 상승하는 중. 참고로 중국 은행권 내 부동산대출 비중 역시 2019년 30% 수준에서 현재 23%까지 낮아진 상태

국내 금융권 영향 미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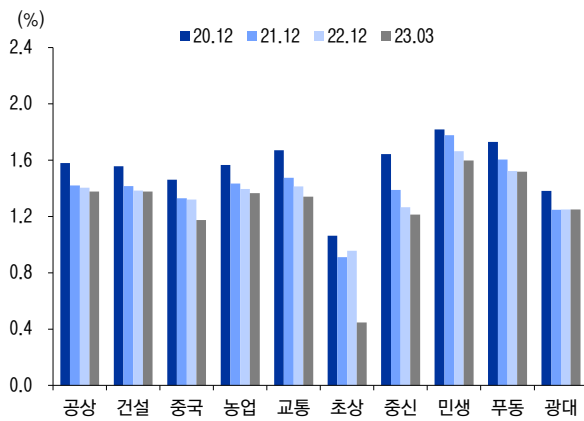
- ▶ 금융위원회는 중국 부동산개발기업에 대한 국내 금융권 익스포저가 4,000억원에 불과해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평가(증권사 2,200억원, 보험사 1,400억원 등. 유가증권 형태 익스포저를 보유하고 있으며 부동산 신탁 등에 대한 간접 익스포저 포함해도 1조원 미만)
- ▶ 과거 헝다그룹 사태와 마찬가지로 국내 금융주에 미치는 영향 또한 일시적일 것으로 예상

그림1 중국 은행권 고정이하여신비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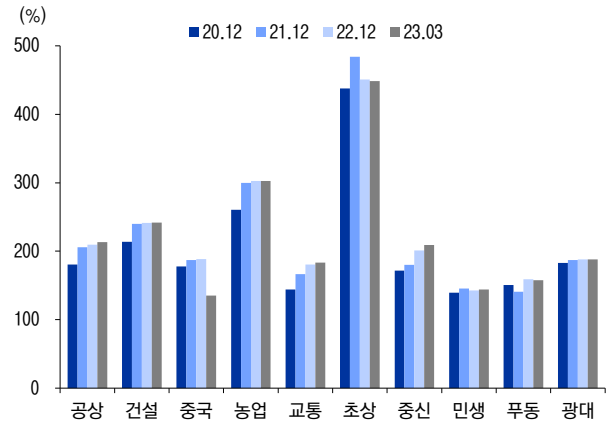
자료: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중국 주요은행 고정이하여신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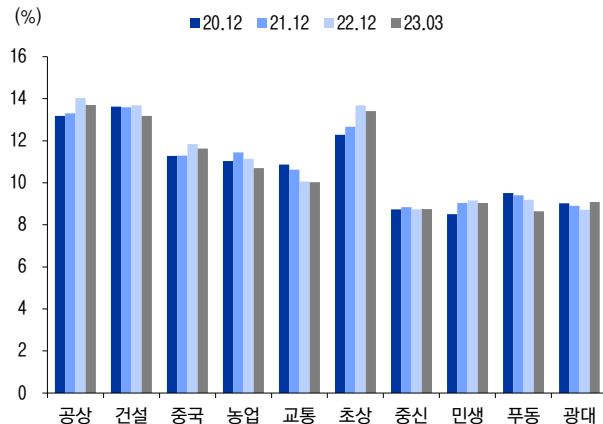
자료: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 중국 주요은행 총당금커버리지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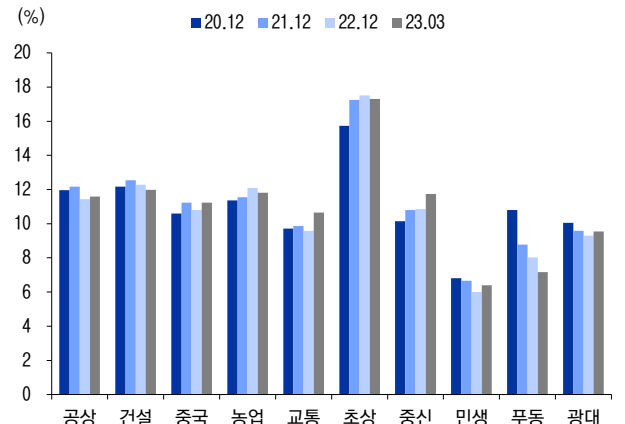
자료: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 중국 주요은행 보통주자본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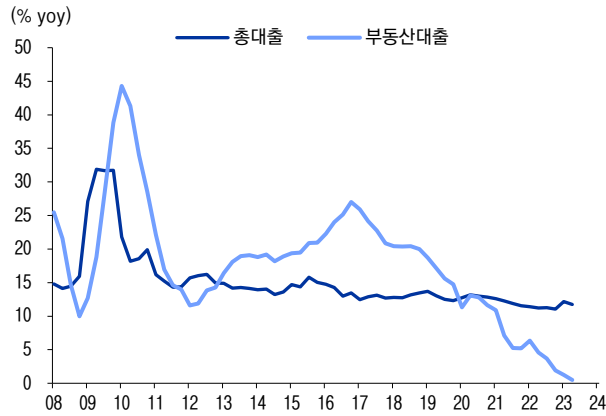
자료: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 중국 주요은행 RO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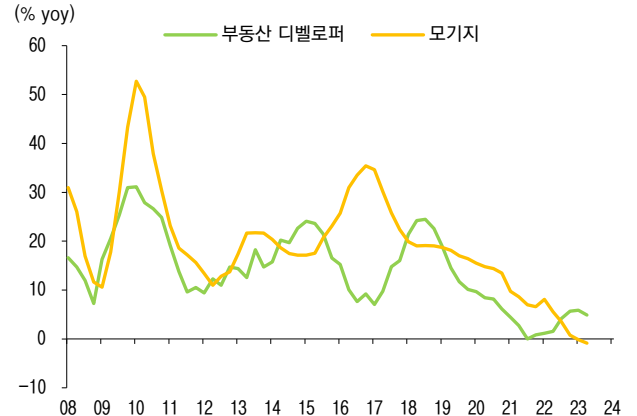
자료: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6 중국 은행권 총대출과 부동산대출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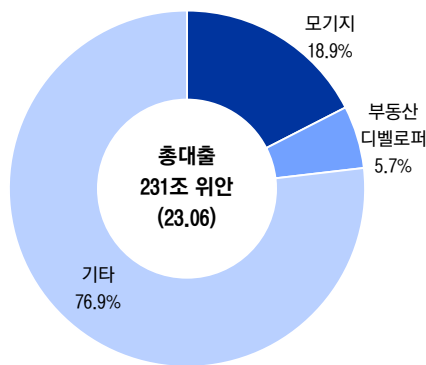
자료: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7 중국 은행권 부동산대출 부문별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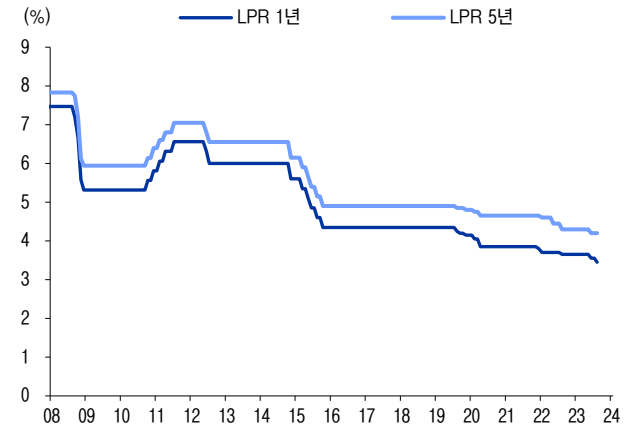
자료: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8 중국은행권 총대출과 부동산대출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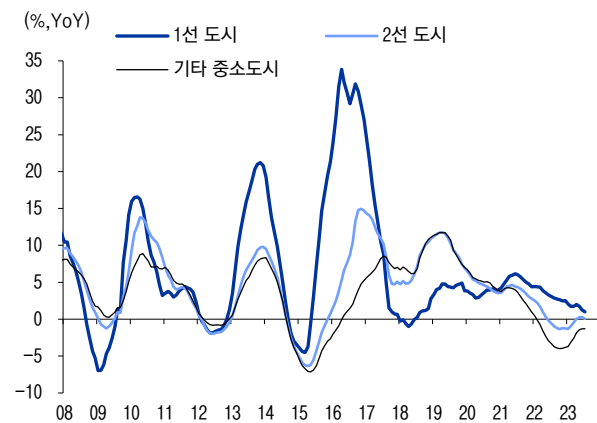
자료: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9 중국 대출금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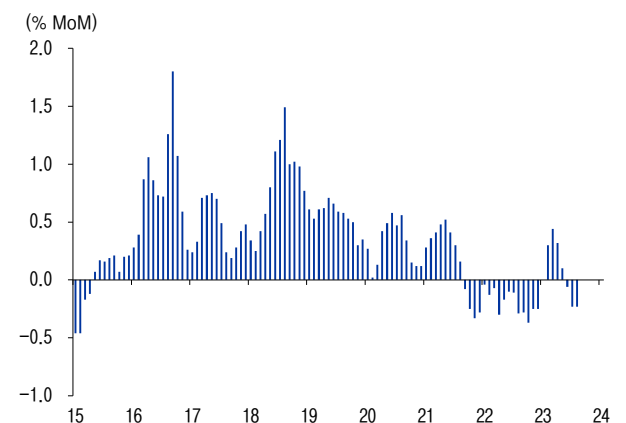
주: LPR(Loan Prime Rate): 18개 상업은행 대출금리. 인민은행이 취합해서 발표
자료: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0 중국 도시별 주택가격 증가율



자료: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1 중국 70개도시 신규 주택가격 증가율



자료: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전배승)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_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투자등급 및 적용 기준

구분	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6~12 개월)	투자등급	적용기준 (향후 12 개월)	투자의견 비율	비고
Sector (업종)	시가총액 대비 업종 비중 기준 투자등급 3 단계	Overweight (비중확대) Neutral (중립) Underweight (비중축소)			
Company (기업)	절대수익률 기준 투자등급 3 단계	Buy (매수)	+15% 이상 기대	94.0%	2018년 10월 25일부터 당사 투자등급 적용기준이 기존 ±20%에서 ±15%로 변경
		Hold (보유)	-15% ~ +15% 기대	6.0%	
		Sell (매도)	-15% 이하 기대		
		합계		100.0%	
					투자의견 비율은 2022. 7. 1 ~ 2023. 6. 30 당사 리서치센터의 의견공표 종목들의 맨마지막 공표의견을 기준으로 한 투자등급별 비중임 (최근 1년간 누적 기준, 분기별 갱신)